**'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전국 53곳, 달서구 어떻게 선정됐나?** /변선진, 매일신문, 2021-06-21

[**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62111045023808**](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62111045023808)

**- 대구 달서구가 대구 8개 구·군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 10가지 원칙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달서구는 대구 구·군 최초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접수-병원이송-응급진료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아동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 있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는 '옐로카펫'도 설치하고 있다.

**옐로카펫에 가려진 점자블록… 대전시·자치구 해결나섰다** / 김중곤, 충청투데이, 2021-02-07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573**](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3573)

**- 대전시는 옐로카펫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점자블록 주변을 5~10㎝의 검은색 띠로 둘러 옐로카펫과 구분 짓는 방안을 대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임**

약시 환자는 점자블록의 색상을 인식해 도보 위에서 진행 방향을 파악한다. 하지만 옐로카펫 대다수가 점자블록과의 구분 없이 똑같은 색상으로 조성돼 진행 방향을 잃을 가능성이 컸었다. 그래서 대전시는 옐로카펫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고 기초단체들은 올해 계획했던 옐로카펫 추가 조성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정춘숙, 어린이 대기 보도·도로에 황색 도색** / 김재득, 중부일보, 2021-02-12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67134**](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67134)

**- 정춘숙 의원이 옐로카펫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옐로카펫법’을 대표 발의함.**

정춘숙 의원은 1월 12일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도 또는 도로의 구역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황색의 색상으로 도색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전 대기하는 기간 동안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머무르는 일이 많다.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옐로카펫’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